

김종인 출마 결심…대선판 변수 될까

문재인 대세론 속 ‘비문 단일화’ 향배 주목

측근 “다음주 선언”…민주 최명길 이르면 오늘 탈당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종인 전 대표가 대권도전 결심을 굳히고 다음주께 대선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문재인-안철수 양강 구도에 보수 후보 간 경쟁으로 틀을 잡을 것으로 관측되던 대선 판도에 새로운 균열 조짐이 보이고 있다. 우선 김종인 전 대표의 탈당과 맞물려 김 전 대표의 측근인 민주당 최명길(서울 송파을) 의원은 이르면 29일 탈당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대표의 출마 결심에 따라 이번 조기대선 판을 흔들 마지막 변수로 꼽히는 ‘비문(비문재인) 단일화’의 향배가 주목된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개인 사

무실에서 일본 민주당의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郎) 전 간사장과 면담한 뒤 출마 여부를 묻자 “내가 오래전서부터 기다려보라고 그러지 않았느냐”며 “사실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생각도 해보지 않은 사람인데 상황이 나를 여기까지 끌고 왔다. 어쩔 수 없이 도망을 갈 수 없고 해서 여기 있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내게 주어진 운명을 스스로 짊어지고 갈 각오를 하고 있으니 다는 다른 이야기는 물어볼 것도 없다”며 “내가 언제나 순교한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한 핵심 관계자는 “김 전 대표가 출마 결심을 굳혔으며, 출마선언은 세월호 인양

문제 때문에 다소 늦춰졌지만, 다음 주 초라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특히 “공동정부 구성을 위한 준비단계가 단일화 작업이다. 아무것도 모르고 무턱대고 단일화하자는 게 아니다”라면서 “단일화 작업을 원만히 끝내야 공동정부가 가능한 것이다. 그게 아니면 나라를 끌고 갈 수 없다”고 말했다. ‘순교’라는 표현의 의미에 대해선 “내가 희생을 해야 될 것 아니냐. 몸을 다 던져야 하니까 각오를 해야지…”라며 “순교라는 게 죽는 것이잖느냐. 그거(비문 단일화) 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권력을 갖겠다는 생각을 하면 다음 정부를 이끌 수가 없다”며 “다음 대통령은 권력을 나눠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갈기갈기 찢긴 대한민국을 회복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 경선에서 확인된 ‘문재인

대세론’에 대해 “말이 경선이지 사전에 이미 다 예측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 하나의 프로세스에 불과한 것인데 호남에서만 나타나는 기본적 성향을 갖고 마치 열기가 대단한 것 처럼 한 것 아니냐”며 “호남의 유권자가 10%밖에 안되는데 그것만 가지고 대통령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안철수 전 대표측이 ‘문재인 대 안철수’ 대결 구도를 부각하는 데 대해 “본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뭐…”라며 “그 사람들이 온통 호남에만 열을 올렸기 때문에 마치 호남에서 굉장히 무슨 큰 흥분된 상태에 놓여있는데 부산은 냉랭했다고 하더라. 전국적으로 보면 냉랭하다”고 평가절하했다. 한편 최명길 의원은 “결심을 굳혔으며 당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해를 구하는 작업을 거쳐 금명간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번엔 범보수 ‘후보 단일화’

97년 DJP연합·2002년 노무현-정몽준 등 野 전유물

1대 1 구도 만들기…한국당·바른정당 행보 관심

5·9 조기대선을 준비하는 범보수 진영의 핵심 키워드는 ‘후보 단일화’에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한 야권 대선주자들에 크게 뒤처진 현 국면에서 반전을 꾀하려면 중도·우파들이 힘을 합쳐 ‘1대1 대결구도’를 만드는 수밖에 없다는 공감대가 널리 퍼져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대선주자 토론회에서 단일화 논란이 하루도 빠짐없이 등장하고 각 당 지도부와 ‘제3지대’에서 연일 단일화 군불 때기가 이뤄지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런 움직임은 과거 야권에서 이뤄졌던 후보 단일화 논의와는 정반대 양상이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6차례의 대선을 살펴보면 1992년 14대 대선을 제외하면 민주당 계열 정당을 위주로 크고 작은 단일화 시도가 끊이지 않았다. 첫 시도는 87년 13대 대선이었다. 군사 독재를 끝내고 민주정권을 탄생시켜야 한다는 국민적 열망 속에 야권의 두 유력 주자인 김영삼(YS) 전 대통령과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단일화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은 것이다. 그러나 두 사람은 사사건건 이견을 좁히지 못하다 결국 따로따로 출마했고 당시 야권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승리를 헌납했다는 자조적인 평가가 나왔다. 실패한 단일화가 첫 결실을 본 것은 10년 뒤인 1997년 15대 대선이다. 새정치국민회의를 이끌던 DJ와 자유민주연합 김종필 총재가 97년 11월 3일 대선 후보 단일화 합의문에 서명하고 ‘DJP 연

합’을 이뤘다. 이를 통해 양측은 단일 대선 후보로 DJ를 내세우고 당선할 경우 공동 정부를 구성하기로 했다. 호남과 충청, 진보와 보수가 손을 잡은 DJP 연합으로 김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김종필 총재도 국무총리에 올랐다. 이어진 2002년 16대 대선에서의 단일화 과정은 한 편의 드라마와 같았다.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방선거 참패와 DJ 아들 비리 등의 악재로 지지를 추락할 뻔치 못하는 사이 국민통합21 정몽준 대표가 한일월드컵 성공 개최를 계기로 주가를 끌어올리며 후보 단일화론은 물론 후보교체론까지 나왔다. 두 사람은 구체적인 단일화 방식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으나 노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한 것으로 여겨졌던 여론조사 방식 등을 막판 수용하면서 합의를 이뤘다. 결국, 2002년 11월 24일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승리한 노 전 대통령은 대선 전날 밤 정 대표의 지지철회에도 불구하고 유력 주자인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를 누르고 승리를 거머쥐었다. 2007년 17대 대선에서는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와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 민주당 이인제 후보 사이에서 단일화 논의가 오갔으나 워낙 이명박 전 대통령이 큰 격차로 앞서있던 상황이라서 성사되지는 못했다. 직전인 2012년 18대 대선은 야권이 후보를 단일화했음에도 패배한 첫 사례다. /이종행기자 golee@연합뉴스



PK로 간 민주 경선 28일 부산 해운대구 KNN에서 영남지역 방송사가 마련한 ‘2017 대선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토론회’에서 문재인 전 대표(왼쪽)와 안희정 충남지사가 취재를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vs 안 캠프 호남 표심 신경전

송영길 “安 지지 격려 차원”…주승용 “현장투표가 더 큰 애정”

5·9 대선이 민주당 문재인-국민의당 안철수 양강 대결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신경전도 팽팽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경선캠프 총괄본부장인 송영길 의원은 28일 “호남은 압도적으로 문 전 대표를 지지하고 있다”며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지지는 일종의 격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에 출연 “호남의 정서는 국민의당도 적폐 청산을 위해 함께 갈 개혁 세력, 연정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안 전 대표에 대한 지지는 일종의 격려의 의미로, 호남의 열망인 정권교체 과업에 경쟁하면서 협력하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또 이날 CBS 라디오에 나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당내 호남 경선에서 압승을 거둔 것과 관련, “일종의 보조타이어 격으로 지지해 준

게 아닌가”라고 평가절하 하기도 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본선 외나무다리에서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경선에서 대부분의 유권자는 현장에 오지 않고 ARS로 투표에 참여했다. (현장 참여 유권자는) 1395명뿐이었다”며 “그러나 국민의당은 9만 명이 넘게 비 오는 날씨에도 찾아왔다”고 호남에서 국민의당 경선 참여 열기가 더 뜨거웠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민의당 김재두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어제 호남권 경선 결과 무효표가 무려 10만여 표가 나왔다”며 “민주당 경선에서는 무효표가 대세며 선거인단 모집이 무더기로 동원됐다는 의심을 갖게 하다”고 비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심상정 “문화전당 사업 완성하겠다”

광주서 지지 호소…“5·18 발포명령자 반드시 색출”

정의당 대선 후보인 심상정 대표는 28일 “민주당 정권만으로는 과감한 개혁은 어려우며 문재인·안철수 구도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도 없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정권교체만으로는 부족하고 정권교체 플러스가 필요하다”며 한 편의 드라마와 같았다. 그는 “두 야당의 경선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정권교체를 해내겠다는 광주의 의지를 봤다. 문재인 대 안철수의 구도로 가져가겠다는 광주의 판단을 읽었다”면서 “하지만 문자마시 정권교체로 봉합한다면 새로운 대한민국은 시작도 못 해보고 좌절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민주당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에서 늘 기득권의 편에 섰고 비정규직 등 노동문제는 차갑게 외면했으

며 재벌개혁에도 늘 미적거렸다”며 “수구세력에 무기력하게 끌려다니며 ‘허락하는 개혁’에 만족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를 정권교체로 끝내기엔 부족하다”면서 “한국 민주주의 역사를 개척했던 광주가 좀 더 과감한 결정을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이날 지역 발전공약으로 “5·18 발포명령자를 반드시 밝히고 국가 차원의 보고서를 발간하겠으며,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

민주 29명 사드 국회 비준 촉구 결의안 제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9명은 정부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관련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과 중국 정부의 보복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의원은 결의안에서 “국민적 합의와 절차의 정당성을 결여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된 정부의 사드배치 진행방식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사드 배

치는 한반 60조에 따른 주권 제약과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마땅히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경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각각 제출한 중국 정부의 보복 중단 촉구 결의안과 함께 30일 외통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 상정 여부가 결정된다. /연합뉴스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대부는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법원경매, 질권대출&부동산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 기업입니다.

NPL관련업무를원스톱으로!

• NPL매입 • NPL매도 • NPL질권대출 • 경락잔금대출 • NPL등기업무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 투자는 채권 투자다. 은행 등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해준 대출이 부실화할 때를 대비해 설정해 둔 “근저당권”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부실채권거래가 경매보다 수익성이 높으며 NPL 대박은 우량 물건 선별이 중요하며 경매보다 한 발 앞선 부실채권을 노려보는 것이 월등한 수익을 창출 합니다.

NPL(근저당권)투자는?
 * 안전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
 *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고수익을 올리고 싶으신 분
 * 경매에 입찰하여 100% 낙찰 받고 싶으신 분
 * 상가,공장,토지,숙박시설등을 반드시 낙찰받고 싶으신 분

광주지역 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가능

[법률자문업무협약 법무법인 지산]

- 광주시 광산구 남산동 733-1, 733-6
 - 토지 : 총 1,370㎡
 - 용도 : 주거지 1층 건물 철거조건
 - 6억5천만원
- 전남 나주시 다시면 월대리 587-27외 3필지
 - 토지 : 총 5,524㎡
 - 용도 : 주거지 2층
 - 8억3천만원
- 전남 해남군 산이면 초송리 579-49외 3필지
 - 토지 : 총 866㎡
 - 용도 : 나대지
 - 2억5천만원 (교환가능)

경매, NPL채권 배우면서 투자 가능하신 분 3명 모집
(2017년 3월 6일 ~ 2017년 3월 30일 까지)

NPL 채권 매입 전문

- 부동산 담보대출 전문 (후 순위 추가대출 가능) 아파트, 주택, 상가, 토지, 등
- 가압류, 가등기, 근저당권, 채권 매입
- 경매 취하자금 대출

대출금리 : 연 27.9% 이내 (추가비용 없음)

- 과도한 빛, 고통의 시작입니다 -

등록번호 2017금감원-0790

유한회사 제이앤와이대부 ☎ 062)382-4987 사업자등록번호 635-86-00606 / 법인등록번호 200114-0064954